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력

2023년

4분기 호



발행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 정종남 편집 : 박지훈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홈페이지 : <http://www.kbcil.or.kr> 전화 : 908-7776 팩스 : 0303-0799-175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거주시설연계사업 '대린원' 개별ILP

거주시설연계사업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개별 ILP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참여자분은 목공 체험, 볼링 체험, 도예 체험, 가죽 공예, 네일아트 등을 진행하셨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개성이 뚜렷하여 다양한 욕구를 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자시만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도 얻고 경험도 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 오○천님 목공 체험

오○천

목공 체험: 내가 원하던 크기에 맞춰서 직접 만드니깐 너무 좋네요, 드라이버로 나사 조이는 거랑 망치로 때리는 거, 풀칠(코팅), 사포질 등 다 내가 작업하니깐 기억에도 남고 뿌듯하네요.

가죽 체험 : 직접 바느질해서 내가 갖고 싶었던 디자인이라 너무 좋네요, 저번에 했던 방식(바느질, 다듬기)을 진행해서 그런지 금방금방 했어요.

거주시설연계사업 '대린원' 개별ILP

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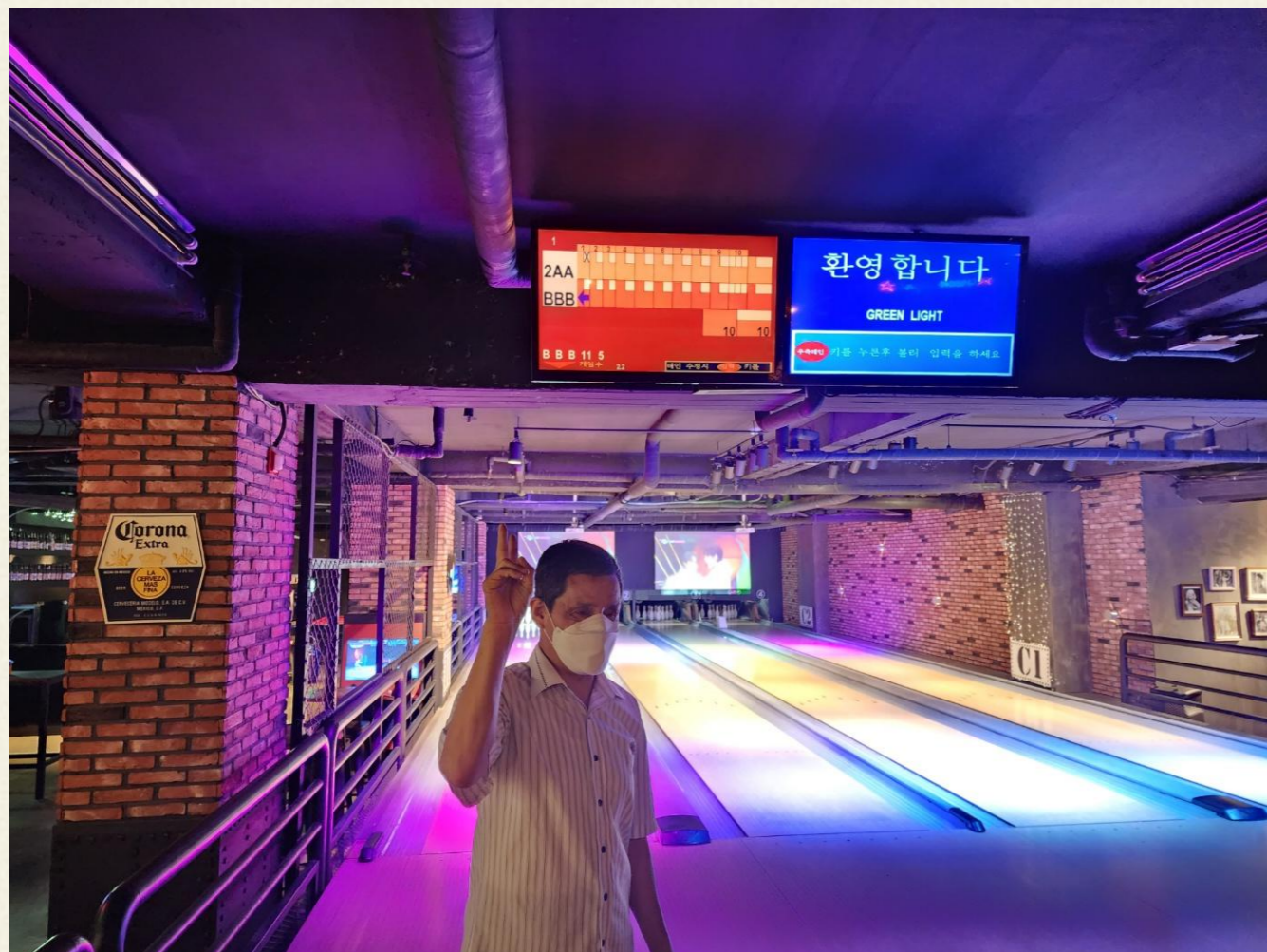
볼링 체험 : 오늘 볼링 점수도 마음에 들고! 스트라이크도 쳐서 기분이 너무 좋아!

목공 체험 : 너무 재미있었어! 내가 쓸 상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허○순

도예 체험 : 흙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걸로 뭘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라 재미있어서 좋았어.

네일아트 체험 : 청소한 거 같아. 응, 손톱 여기 같고 여기 손톱 뭐가 난 거 정리하고 너무 좋았어!



▲ 김○호님 볼링 체험



▲ 허○순님 네일아트 체험

거주시설연계사업 집단ILP - 구리볼 만들기

2차 집단ILP을 9월 15일(금) 참여자분들의 욕구에 맞춰 제빵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집단ILP 진행 시 초코머핀을 대린원 내 식구들에게 나눠주니 뿌듯하여 이번에는 옛날 과자‘구리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참여하게 된 한 분과 함께 총 4명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2명씩 짝이 맞다 보니 서로 이야기하시느라 학원 가는 길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별로 안 찾게 되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 보네’, ‘옛날 먹었던 그 맛이 나올까나...’



▲ 집단ILP 프로그램 시작 전에 진행 내용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거주시설연계사업 집단ILP - 구리볼 만들기



▲ 상투과자 반죽 어렵지 않은데?



▲ 이렇게 누르면 됩니까?

오○천 : 너무 재미있었어. 짜는 거 반죽하는 거 뭐든, 어디서 이렇게 해보겠어! 하하.

김○호 : 반죽하는 거, 반죽하는데 손가락 말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재미있었어.

허○순 : 반죽이 이리 끈적끈적한 거 만져본 건 처음이야. 옆 사람이 같이 도와줘서 너무 재미있었어.

송○기 : 반죽하는 거하고 짜는 거 하고 둘 다 재미있었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2차 인권교육



▲ 강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학대 사례 나누기 교육 진행 모습

대리원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은 남유선 인권 강사님께서 1. 도전적행동의 이해 2. 장애인학대 사례나누기 3. 장애의 이해 4. 실천현장에서의 인권딜레마 등의 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도전적 행동이나 인권 침해 사례 등 애매했던 부분을 종사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이에 종사자분들은 현장과 비슷한 사례 및 중복장애 등 요청한 강의 내용을 수강함에 따른 높은 참석률과 현장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자립생활체험



▲ 맛있는 저녁식사를 만들어요.



▲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립생활체험 9월 21일(목) ~ 9월 22일(금) 1박 2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장 방문, 요리 체험, 남산골 한옥마을 방문, 향수 만들기 등 참여자들이 직접 여행 일정에 맞춰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가정식 인테리어로 된 오리엔스호텔앤레지던스에 방문하여 구경하던 중 ‘침대가 너무 좋다.’,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거실도 넓다!’ 등 호텔이 마음에 드셨는지 칭찬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저녁과 아침으로 먹을 반찬 및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중부시장을 방문하여 장을 본 재료를 가지고 호텔로 돌아와 역할 분담에 따라 저녁과 아침 요리 담당과 뒷정리 담당으로 나뉘었습니다.

거주시설연계사업 자립생활체험



▲ 직접 만든 향수입니다!~



▲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단체사진 찰칵!

저녁요리는 메인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호박전을 직접 만들었으며, 그 외 다양한 반찬거리와 함께 식사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이야 냄새 좋다!’ ‘직접 다 해서 저녁 차리려니 힘드네. 하하’ ‘오늘 배불리 먹겠는데?’

이처럼 요리도 직접 해서 거주인분들과 나눠 먹고, 향수를 직접 만들어 여행 선물로 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라 너무 좋았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린원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습니다.

2023년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응답하라 52Hz”-



▲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모습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진행 모습

2023.09.21(목) ~ 2023.09.22(금) 13:00 ~ 18:00 까지 이틀간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은 (주)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의 송○애 대표님과 김○민 강사님 그리고 총 13명의 참여자와 함께 했습니다.

동료상담을 하면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1일에는 김○민 강사님이 발달장애인과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알려주신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실습도 해보고 5시간을 꽉 채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2023년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응답하라 52Hz”-

22일에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송○애 대표님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자아존중감이란 무엇인지, 센터에서 쓰는 척도를 기준으로 피드백도 받고 척도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도구들을 소개 받아 체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웃는 얼굴로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다들 집중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애 대표님과 김○민 강사님 13명의 참여자분들과 스텝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상담가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 단체 사진

찾아가는 동료상담 &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홍○미, 이○진)- 엘리멘탈 영화 시청

2023.10.12(목) 15:00 ~ 17:00

동료상담과 개별ILP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은 이○진 님과 홍○미 님 두 분 모두 영상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집단ILP로 영화를 준비하였고 동료상담가 최○덕 강사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화를 보기 전에 친구 사이 예절 교육으로 영상을 본 후 진행하였습니다.

친구 사이 예절 교육 영상을 보면서 친구를 만나면 인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두 분 모두 집중을 잘 해주셨습니다. 교육 영상 시청 후에는 미리 준비된 팝콘과 음료수를 먹으며 영화를 보았고 홍○미님은 예상외로 영화가 재미있었는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진님은 오랜 시간 힘들었는지 중간 중간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 때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 엘리멘탈 영화 관람 모습

찾아가는 동료상담 &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홍○미, 이○진)- 엘리멘탈 영화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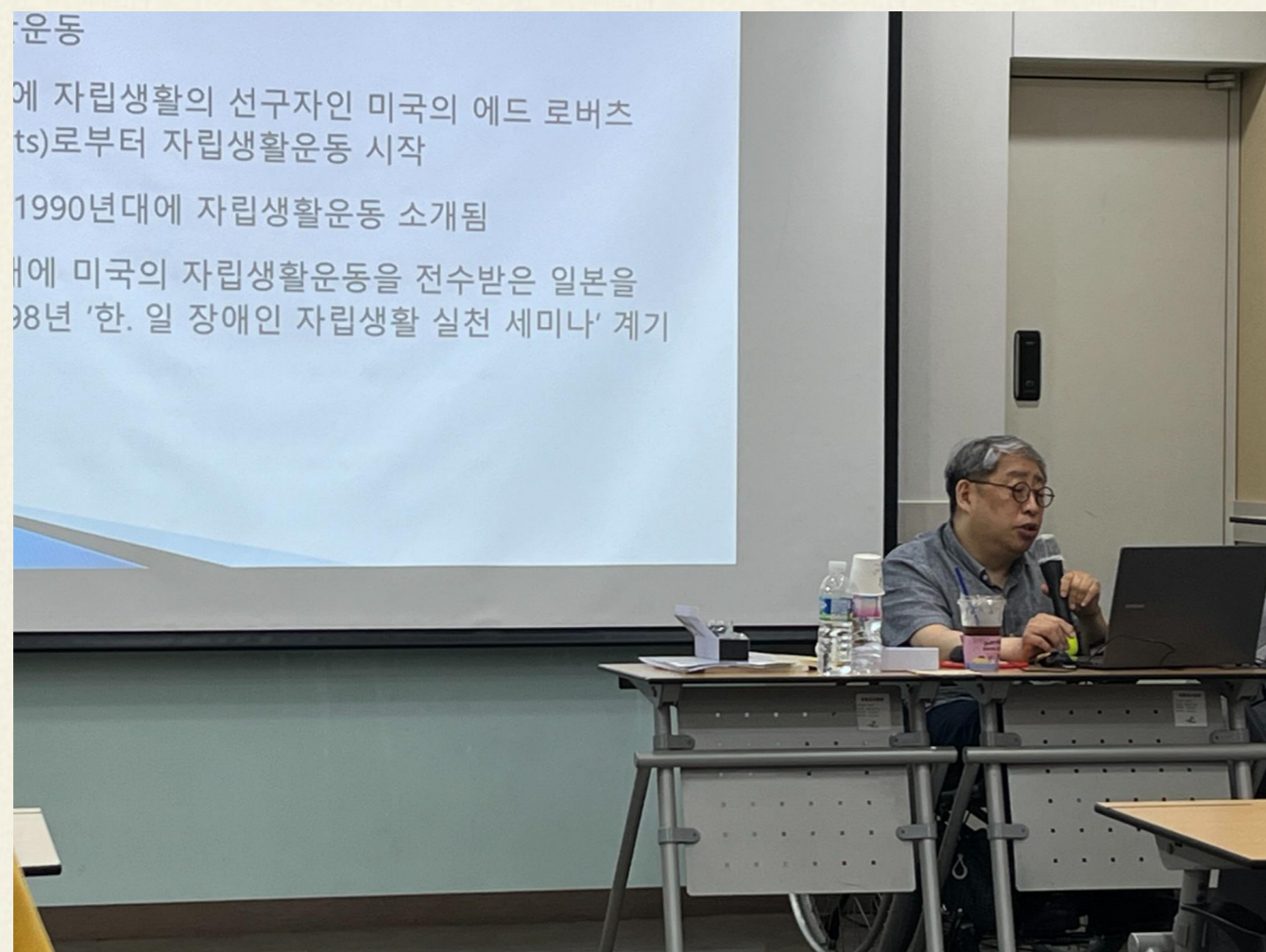
▲ 친구 사이 예절 시청 모습

이○진님 홍○미님과 활동지원사 두 분, 그리고 동료상담가 최○덕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서로가 즐겁고 특별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1강 진행 모습



▲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5강 진행 모습

2023년 8월 17일(목) ~ 9월 14일(목)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제17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인권강좌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짹짹

제17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는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하여 차별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제17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이번 인권강좌는 다양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주제와 이슈를 강의주제로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1강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센터의 역할(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2강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3강 탈시설과 향후 방향(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

*4강 장애학과 당사자주의(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5강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서해정 센터장),

*6강 장애인의 건강권(건강의집의원 홍종원 원장) 등 총 6개 강의로 구성했습니다.

평소 다루기 어려웠던 법과 관련된 부분부터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그리고 요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함에 따라 참여자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 내 인권강좌에 관심이 많으신 장애인·비장애인 지역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에 따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수강생분들과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수료 축하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4분기 진행 보고



▲ 귀여운 사막여우와 함께 찰칵!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7차 사전회의 진행모습

2023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은 7차 08.16(수), 8차 09.20(수), 9차 07.19(수) 총 3회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7차는 08.16(수) 실내동물원 관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진행 당일 수유역에 위치한 송주불냉면에서 다함께 맛있는 점심식사를 진행하고 실내동물원 관람을 위해 주렁주렁 타임스퀘어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실내동물원에는 다양한 종류 동물들이 있었으며 참여자분들께서는 동물들을 관람하며 '정말 귀여워요.', '너무 가까워서 무서워요!~.' 라고 하시며 자신의 기분을 표현해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4분기 진행 보고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8차 페스티벌 구경모습



▲ 뮤지컬 '레베카' 정말 재밌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8차는 09.20(수), 놀이공원 체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차 자조모임은 야구경기 관람으로 진행하고자 사전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 당일 전국에 비가 내려 경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당일방문이 가능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놀이공원으로 진행했으며 참여자분들 모두 즐거워해주시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9차는 10.18(수), 뮤지컬 관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컬은 한강진역에 위치한 블루스퀘어에서 진행하였으며 수요일에 관람이 가능하고 오후 시간대에 상영하는 뮤지컬 '레베카'로 결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뮤지컬 관람은 총 2시간 30분 소요되었으며 뮤지컬 관람을 모두 마친 후 참여자분들께서 '뮤지컬 너무 재밌어!!', '내용이 너무 웃겨! 그래서 더 재밌어!' 라고 해주시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맛집 탐방



▲ 맛있는 짬뽕을 먹는 입주자분들



▲ 맛있는 음식과 다함께 찰칵!

7월 28일 (금).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맛집 탐방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오랜만에 맛집 탐방 체험이고, 무엇보다 입주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중국음식 전문점을 방문하게 되어서,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 강북구 내에서 Hot한, 미성반점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도 낳고, 후기도 좋아 결정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소 주변이 입주자분들에게 친근한 공간이여서, 자립 이후나 친구분들과 함께 올 수 있을만한 지역이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19 민주묘지공원 및 그 지하철역, 근처 다형주택 위치, 가끔 산책하던 우이천 등 오는 동안 “여기 내가 안다고” 라고 이야기 하며, 익숙함과 친근함 그리고 자신감이 뽐뽐할 수 있었던 기회와 동시에, 맛있는 짬뽕과 시원한 에어컨까지. 입주자분들에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수 있었던 맛집 탐방 체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안동 찜닭 만들기



▲ 재료 손질부터 직접 합니다.



▲ 안동 찜닭 식사 진행 모습

9월 15일 (금) 가형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요리실습 - 안동찜닭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6일 (수) 입주자간담회에서 요리실습 주제가 피자vs안동찜닭으로 나뉘었습니다. 듬뿍 올라간 치즈와 다양한 재료가 어울려지는 피자, 달달한 간장 냄새와 당면, 닭이 어울려지는 찜닭 두 가지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보통은 입주자 이○수님이 양보해 주셨는데,

요번에는 찜닭을 정말 만들어보고 싶었는지, 간담회 때 찜닭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열의를 보여주셨고, 이에 형으로써 입주자 신○수님께서 멋지게 양보해 주시어, 이번 요리실습을 안동찜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안동 찜닭 만들기

사실 요리실습 하면 입주자 이○수님이기에 시작 전부터 상당히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입주자 신○수님도 대파와, 감자를 먹기 좋게 썰어주시며 옆에서 계속 보조를 해주셨습니다.

안동찜닭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여서, 레시피도 준비했는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본인 스타일대로 진행하는 뒷모습은 정말 셰프 같아 보일정도였습니다.

입주자 이○수님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기었고, 누구보다 입주자 신○수님이 가장 즐거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입주자 신○수님은 요리실습 자체에도 흥미를 보여주시지만, 본인께서 좋아하시는 소장님, 활동지원사, 입주자 이○수님, 코디네이터 등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신○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는 그 의미가 있기에 높은 만족감과 지속하여 요리실습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시는 원동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이번 요리실습을 종료하였습니다.



▲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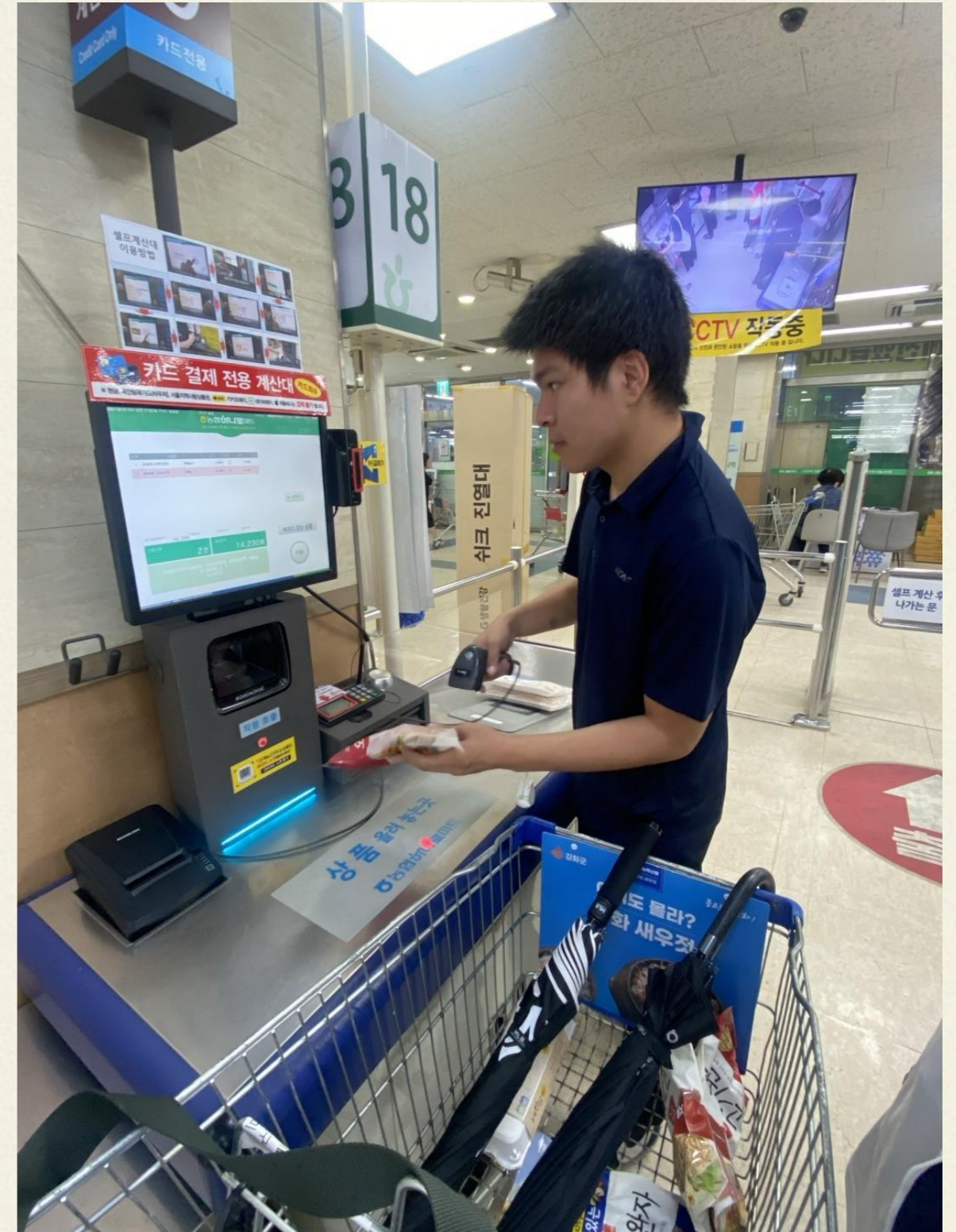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추석 음식 만들기

9월 27일(수) 가형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요리실습 - 추석음식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추석vs설날 중 어떤 것이 더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석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가을이 안겨다주는 선선함과 높은 하늘이 선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에 때문에 나이 한 살 올라가는 설 보다 추석을 좋아합니다. 가을과 추석이 선사하는 기분을 입주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싶어 이번 추석음식 만들기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요리실습 시작부터 명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장을 보던 곳에서 벗어나, 창동역 인근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고 당일 추석 음식을 구매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과 높이 쌓여진 과일상자, 시식코너에서 풍겨오는 전 냄새로 인하여, 입주자분들은 요리실습 시작 전부터 만족감을 드러내주시었습니다. 부침가루와 계란물을 골고루 무치고, 기름을 가득 두른 후라이팬에 부쳐 완성되어 쌓여가는 전을 보면서 입주자분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 추석음식 재료 구매 모습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추석 음식 만들기



▲ 손질부터 조리까지 직접 해야 맛있죠!



▲ 직접 만든 추석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전을 함께 먹으면서 요리실습 소감을 공유 하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입주자 이○수씨는 명절에 사람이 북적한 마트에서 재료를 고르고 시식하는 것을 입주자 신○수씨는 본인께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좋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평가가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명절이 주는 그 감정을 입주자분들에게 느끼게 함으로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함께 호흡하고 소속해 있다는 것을 선사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 “저희 다음 설날에도 요리실습 하나요?” 라는 입주자 이○수씨의 물음을 통해, 명절을 앞두고 쓸쓸함 보다 행복함을 입주자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번 요리실습 - 추석음식 만들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부산 여행

10월 13일(금) ~ 14일(토)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 7년간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저희와 생활한 입주자 신○수님의 퇴거와 새로운 자립생활의 삶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실 퇴거한다 하더라도, 수유역 인근에 거주지를 구하여, 활동지원사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입주자분께서는 익숙한 수유역임에도 아직은 낯설고 두려운 가득한 일이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누구나 경험하는 독립을 앞둔 설렘 반-두려움 반 정도의 심정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 두려움보다 자립을 통해 시작하는 삶이 기존의 자립생활주택보다 더 설레고 재미있는 것임과 동시에, 지금처럼 항상 옆에서 강북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과 코디네이터 활동지원사 분이 함께 할 것이라는 신뢰를 선사할 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여행계획을 권유 드렸고, 입주자 두 분 모두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사전 간담회 때 입주자 이○수님께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고급 정보도 공유 주셨습니다.

영화제 외에도 여러 맛집 관련 정보도 알려주시며, 여행 의지를 불태워 주셨습니다. 주요 행선지 인 해운대와 영화제 장소가 멀지 않아,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산 국제 영화제 앞에서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부산 여행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3시간의 열차와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지하철까지. 장거리 여행이 주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만큼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풍경과 사투리, 거리의 모습 등 새로운 환경과 드넓은 해수욕장의 모습에 입주자분들의 밝은 미소로 힘들지 않음을 표현해 주시었습니다.

입주자 이○수님이 원하시던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도 참여하고, 입주자 신○수님 원하던 바닷가와 맛있는 횡집도 방문하여, 이번 1박2일 자립축하 부산여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수 입주자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부산 여행



입주자 신○수님에게는 추억을, 입주자 이○수님에게는 다가오는 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그리고 코디네이터인 저에게는 입주자 신○수님 7년 동안의 시간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각자에게 선물하였던 시간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계획했을 당시 입주자분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설렘으로 바뀌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응원하고, 옆에서 항상 지원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님 자립을 축하드립니다!

가·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우이동 캠핑장 체험



▲ 캠핑장에 도착한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식구들

8월 24일(목) 가형·다형 주택 입주자분들과 여가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이동 가족 캠핑장에 방문하여 캠핑장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8월 입주자 회의와 개별상담 및 일상생활 욕구표현에서 캠핑장 체험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보이셨기에 8월 여가문화체험은 캠핑장에 방문하고자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입주자분들께 캠핑장 체험 중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여쭙보니 '마시멜로 구워먹고 싶어요, 고기 먹어요, 같이 만나 등'캠핑장 체험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우이동 캠핑장 체험

가형·다형 주택 입주자분들은 각각 장을 본 뒤 캠핑장에서 만났습니다. 각자가 캠핑장에서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구매 하였으나 대부분 비슷한 물품들이였기에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웃으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글램핑장에서 물건들을 정리한 뒤 캠핑장 체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주변 산책부터 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과 캠핑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캠핑장 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캠핑장을 체험할지에 대해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캠핑장에 도착하여 프로그램 체험중 하나인 불 피우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신○수씨와 이○수씨께서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기, 입주자 강○연씨와 엄○희씨는 부채질을 이용하여 불이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돕기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불붙이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채 손질과 고기 굽기에 있어서도 입주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캠핑장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입주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맛있는 저녁식사 준비를 합니다.

가·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우이동 캠핑장 체험



▲ 고기 굽기 체험 진행중입니다!~



▲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단체 사진

고기 굽기 체험이 종료된 후 정리를 위해 일상생활기술훈련 중 하나인 분리수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 중 참여하지 않고 쉬는 사람 없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며 캠핑장을 깔끔하게 청소하였으며, 그 후 캠핑장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들과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입주자 이○수씨는‘마시멜로 구웠던 게 좋았어요, 캠핑장 체험 재밌었어요’, 신○수씨는‘고기 구웠어 내가, 좋았어, 엄○희씨는‘학○형, 있어’, 강○연씨는‘좋았어요, 또 와요’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만족도를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엄○희 입주자 생일파티



▲ 생일 축하 촛불을 후~ 끄고 있어요.



▲ 생일축하드립니다!~ 엄○희님

9월 1일(금) 다형 주택 입주자 엄○희씨의 생일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엄○희씨는 당일 평생교육센터 하원 후 자신의 생일임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정확한 인지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당일이 자신의 생일임과 생일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 드리니 표정이 좋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에 도착하여 손 씻기를 마친 후 미역국 끓이기, 생일파티 장소 꾸미기, 생일파티 노래 부르기과 같이 당일 생일 파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입주자 엄○희씨는 프로그램 진행 내내 만족하는 듯 웃으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왕의 장어

9월 12일(화) 다형 주택 맛집탐방 프로그램으로 장어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회의, 개별상담, 일상생활 욕구 파악을 통해 입주자분들의 욕구 파악을 진행하였으며, 입주자분들은 다양한 체험 중 장어를 체험하고 싶어하시는 욕구를 보였기에 왕의장어 식당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직접 구워서 먹을겁니다!

직접 메뉴선정부터 시작하여 식기류 세팅, 반찬리필, 장어 굽기 등 입주자분들의 주도 하에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운 장어 굽기에도 입주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워가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굽기를 끝낸 후 본격적인 장어 체험을 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맛있어요, 고기야’등 장어 체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맛집 체험을 하시며 프로그램은 종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입주자분들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맛집탐방이 어땠는지, 또 방문하고 싶은지, 아쉬웠던 점은 있었는지’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강○연씨는‘좋았어요, 또와요, 괜찮아요’와 같이 입주자 엄○희씨는 ‘좋았어, 고기야’와 같이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추석 음식 만들기



▲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 재료 손질부터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9월 27일(목) 다형 주택 입주자부들의 요리실습(명절 음식 만들기)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석을 대표하는 요리실습을 통해 입주자들의 개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상생활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장보기에 있어서 동그랑땡, 애호박, 산적 등 추석 음식을 대표하는 재료들을 선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추석 음식 만들기

입주자분들은 번갈아가며 재료 손질하기, 계란 물 묻히기, 전 부치기를 진행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도중 ‘자립해서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니 입주자 강○ 연씨는 고민하시더니 ‘할 수 있어요!’라고 하였고, 입주자 엄○ 희씨는 ‘예, 해요’와 같이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입주자분들이 자신감 있게 요리실습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통해 입주자분들이 향후 자립시에도 명절 음식 만들기에 어려움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 노릇노릇하게 굽고 있어요!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아카데미 하우스



▲ 아카데미 하우스 앞에서 사진 찰칵!



▲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화) 다형 주택 입주자부들의 맛집탐방(아카데미하우스-디저트카페)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회의를 통한 입주자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맛집탐방(아카데미하우스-디저트카페) 프로그램 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장소인 아카데미하우스에 도착하여 입주자분들이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메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입주자분들은 메뉴판을 보며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결제를 직접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아카데미 하우스

프로그램 메뉴로 선정한 음식들은 입주자분들이 직접 픽업, 세팅, 반납까지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입주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은 조심스럽게 세팅,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셨으며,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피자, 샐러드 등 음식을 맛보며 ‘맛있어요, 좋아요, 또 오고싶습니다’ 등 음식을 맛보며 상당히 만족한 표현을 보이셨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 입주자분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셨고, 이를 통해 입주자의 욕구가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잠시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발달장애인 인턴을 마치며

발달장애인 인턴 이만수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참여모습



▲ 다형 입주자 운동 지원 모습

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 발달장애인 인턴 이만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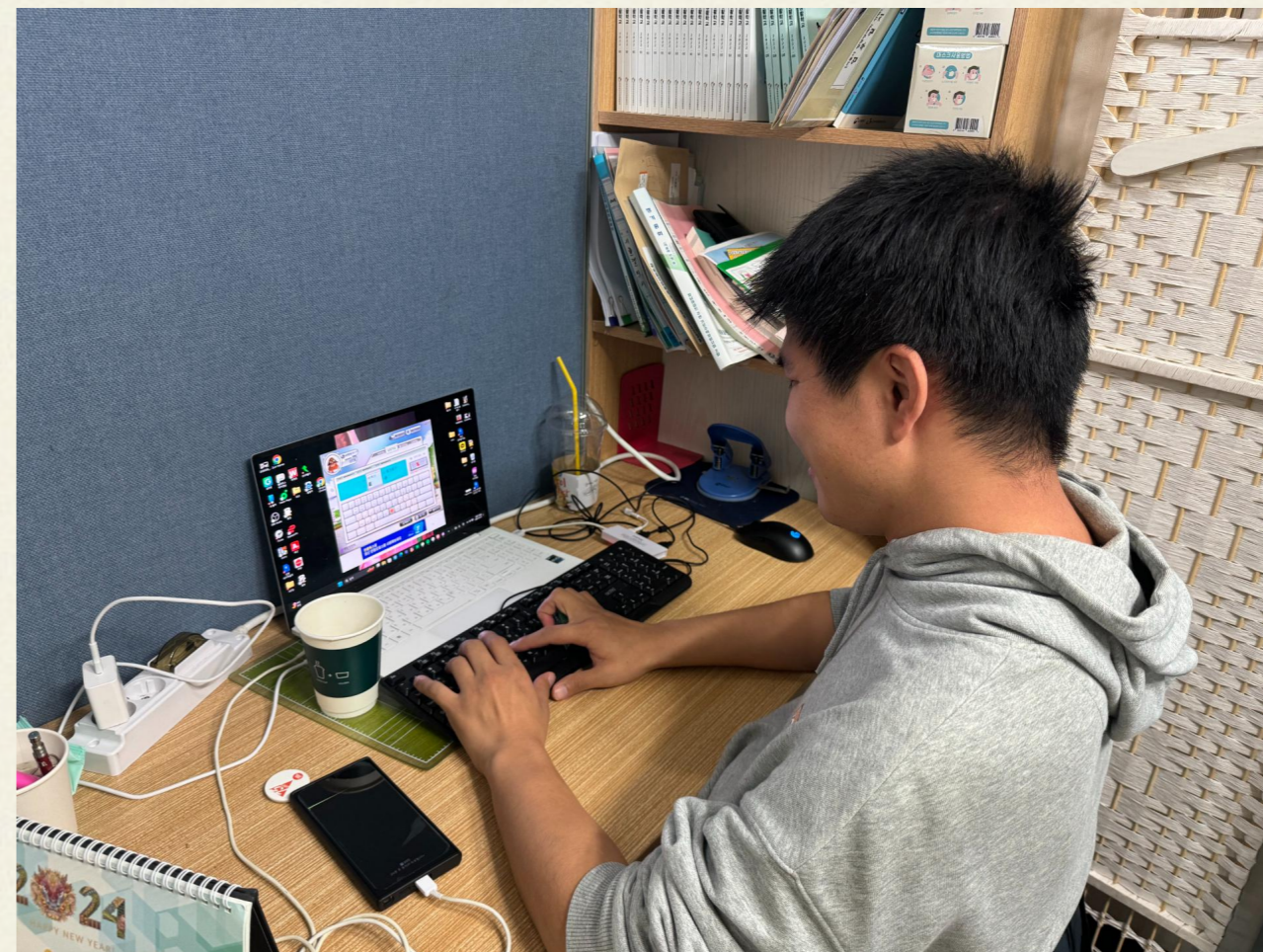
저는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직이라는 환경이 어색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강북센터 직원분들에 일을 도와드리면서 점차 일이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발달장애인 인턴을 마치며



▲ 체험 김치 담그기 사업 참여 모습



▲ 이만수 인턴 업무 진행 모습

저는 발달장애인 인턴으로써 입주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일 평생교육센터 하원을 도와드리고 운동을 함께하며 입주자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서로의 이야기도 하고 감정을 나누며 교류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뜻 깊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인턴을 마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싶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고 인턴을 마치면 실습도 받을 계획입니다.

9개월 동안 항상 절 도와주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달의 정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까지 확대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오는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 개선 前 | | | 개선 後 |
|--|----------------------|--------------------|----------------------|----------------------|
| | 만 65세 미만 장애인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장애인 | 만 65세 이상 장애인 | 모든 장애인 |
| · 기능제한(XI)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에서 별도 선정) | 350시간 (월 5,449천원) | 지원 없음 | 200시간 (월 3,114천원) | 350시간 (월 5,449천원) |
| · 기능제한(XI)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200시간 (월 3,114천원) | 지원 없음 | 100시간 (월 1,557천원) | 200시간 (월 3,114천원) |
| · 기능제한(XI)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 120시간 (월 1,868천원)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120시간 (월 1,868천원) |
| · 기능제한(XI)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 100시간 (월 1,557천원)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100시간 (월 1,557천원) |

▲ 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서울시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들은 돌봄의 손길이 누구보다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온라인 퀴즈 이벤트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식개선 캠페인

온라인 퀴즈 이벤트

**강북CIL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요~**

서로 다른 듯 닮은 사람들이
장애와 비장애로 인한 편견을 벗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퀴즈 이벤트 참여방법

10.24~11.02 이벤트기간내 장애인식개선문제풀이후제출

대상선택 추첨을 통한 이벤트당첨자20명 선정

기프티콘 발송 이벤트당첨자20명 선정에따른기프티콘발송

일 시: 2023년 10월 24일(화) ~ 11월 02일(목) 까지

대 상: 서울시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방법: 구글폼 혹은 QR코드 접속

선정안내: 추후 개별안내

문 의: 담당 주영경 과장 070-4437-5505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이벤트 참여하기!

2023년 8월 ~ 10월 회비 납부명단

김숙이 김재환 민한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박혜진 배소영
안해영 윤동현 이동현 이영석 이영훈 장민정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옥희 최윤숙

회비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02-908-7776